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elf-Esteem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on Emotion Regulation of Children

금정중학교
교 사 조 수 현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교 수 · 겸임연구원 이 경 님

Geum Jung Middle School
Teacher : Su Hyun Cho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Dong-A University
Professor · Research Fellow : Kyung Nim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children's self-esteem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on emotion regul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493 5th and 6th grad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maternal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directly affected children's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while maternal affectionate and permissive parenting directly affected children's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econdly, children's self-esteem directly affected both their maladaptive an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while also acting as a mediator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maladaptive an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Children's cognitive reappraiser strategy positively affecte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but emotion suppressive strategy negatively affecte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Thes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maternal parenting or children's self-esteem an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주제어(Key Words) :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어머니의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자아존중감(self-esteem), 정서조절방략(emotion regulation strategy)

Corresponding Author : Kyung Nim Lee,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Dong-A University, Hadan-Dong 840, Saha-gu, Busan, 604-714,
Korea Tel:+82-51-200-7311 Fax:+82-51-200-7312 E-mail:knlee@dau.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로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아동은 출생하면서부터 부모관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달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기쁨, 슬픔, 분노 등의 정서표현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바람직한 사회관계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그대로 표출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서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아동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서표출규칙이 있음을 인식하고 점차 이를 배우고 따르면서 적절한 사회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이 문화적 정서표출규칙을 따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하는 능력으로(Shaffer, 1999) 또래나 성인과의 관계 등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이다(Eisenberg & Fabes, 1994).

정서조절능력이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감정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감정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인 자극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포함된다(박서정, 2004). 아동이 부정적 정서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불안정하고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상황에 적합하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표출할 경우 기능적이고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최소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포함되므로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의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박서정, 2004).

많은 연구들에 의해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정서발달과 바람직한 학교적응과 사회적 관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정서조절을 잘 하는 아동은 또래유능성이 높고 리더십이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 안정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며(박성연, 강지훈, 2005),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또래유능성이 떨어지며 충동적이고 공격성이 높고 우울 등 내면화 행동문제를 표출하기도 하여(김미정, 2006; 한유진, 2006; 허정목, 2005; Eisenberg, et al., 2001)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Rydell, Berlin, & Bohlin, 2003). 이처럼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바람직한 또래관계발달과 학교와 사회적 적응을 위한 선행요인이 되므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관련된 중요한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아동의 행동발달은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Riegal, 1973, 임희수, 박성연, 2001에서 재인용) 정서조절능력 역시 아동 개인의 특성과

사회화 과정이 함께 작용하여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이혜련, 최보가, 2005).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과 그 개인차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은 아동의 많은 행동의 학습에 모델이 되며(Bandura, 1977)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은 이미 생의 초기에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본다(Malatesta & Haviland, 198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이, 부적응적 정서조절에는 거부·강압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박서정, 2004), 어머니가 한계설정을 많이 할수록 또 한 달 반응적일수록 아동은 부정적 정서조절을 많이 하였다(송혜영, 2007). 또한 어머니의 애정성이 높고 통제성이 낮은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은 애정성이 낮고 통제성이 높은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보다 분노조절을 더 잘하고(이혜련, 최보가, 2005),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아동들은 분노를 많이 표현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낮다고 보고되었다(Calkins, Smith, Gill, & Johns, 1998; Gottman & Katz, 1989).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의해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행동을 보이는가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감소와 적응적 정서조절의 증진에 어머니의 애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제적이거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개인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아동의 특성으로 정의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 정의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성공적인 적응 및 사회적 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Shaffer, 1999) 자아존중감의 개인차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경남, 200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하며(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슬프거나 분노를 느끼는 등 부정적인 정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특성 중 인지적 특성으로 정서조절방략이 관심을 받고 있다. 어린 유아들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이 미숙하지만 학령기에 들어서면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정서조절방략을 점차적으로 학습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정서를 표출하는 강도를 조절하게 된다. 그런데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하는가는 개인차가 많고 모든 정서조절방략이 항상 효율적인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서조절 효율성의 개인차의 근원은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는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하는가 하는 정서조절방략의 선택 및 사용의 차이에 있다. 정서조절방략의 선택과 효율성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Groos, 1998, 2001) 부적인 정서 상황에 대하여 재해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인지적 재구성 혹은 재해석방략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정서표현을 단순히 억제하는 방략은 부정적 정서의 표출을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부정적 정서를 개선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인지적 재해석방략은 부적 정서조절에 효과적이었으나 정서표현 억제방략은 부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밝혀지고 있다(손재민, 2004). 또한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조절 양식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양식이고 지지추구적 조절 양식이 회피/분산적 조절 양식보다 정서조절에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민경환 외, 2000). 그리고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방략을 많이 사용하고 공격적인 방략을 덜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하며, 공격적 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서정, 2004).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어떠한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정서조절의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고 있어 정서조절방략의 유형이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도 많았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방략과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하여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다(박서정, 2004). 또한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문영숙, 2002;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 이숙, 최정미, 2003).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인지적 재해석방략과는 정적관

계, 정서표현 억제방략과는 부적관계가 나타난 연구(손재민, 2004)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한다는 연구(민경환 외, 2000; Carver et al., 1989)가 있었다. 이들을 요약하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또한 동시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리라 추측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은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는 정서조절능력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은 정서조절방략의 차이를 야기하여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리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은 서로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정서조절능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방략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이 어떻게 서로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는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없어 이를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학령기 후반의 아동기는 정서조절능력의 결핍으로 인한 정서와 행동 및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가 급증하는 청소년기 직전의 시기로 이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련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한편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은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고 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포함되므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의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요인을 밝히는 연구도 의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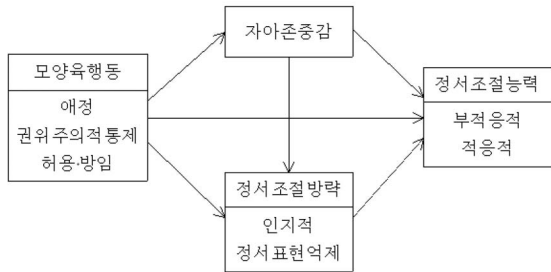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들 관련변인들이 정서조절능력에 대하여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이 어떻게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조절능력(부적응적, 적응적)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허용·방임)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 방략(인지적 재해석, 정서표현 억제)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 감 및 정서조절방략은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가설적 경로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립초등학교 3개교의 5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493명의 아동이다. 이 중 남자는 248명(50.3%), 여아 245명(49.7%)이며 그들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연령은 41~45세가 170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6~50세가 161명(32.7%)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41~45세가 193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6~40세가 144명(29.2%)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 289명(58.9%), 고등학교 졸업이 178명(36.3%)이고, 어머니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 269명(54.5%), 고등학교 졸업이 214명(43.4%)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은 자영업이 157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직과 기술직이 152명(30.8%), 피고용기능능인이 136명(27.6%)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 유무를 살펴보면 취업 유 279명(56.6%), 취업 무 214명(43.4%)으로 나타났다. 아동

이 지각하는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288명(5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간 부유한 편이다'가 103명(20.9%)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척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elds와 Cicchetti(1995)에 의해 개발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박서정(2004)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12문항과 적응적 정서조절 8문항 모두 20문항으로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이들 문항들에 대한 이해와 난이도를 검토한 결과,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20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Scree test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2개 요인으로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 안 되는 1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9문항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모두 11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3.90%를 설명하였으며 부적응적 정서조절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8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6.35%를 설명하였으며 적응적 정서조절로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요인까지 설명되는 변량은 모두 40.25%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를 들면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을 낸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기분이 금세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한다)' 등이다. 적응적 정서조절은 상황에 적절한 정서표현을 할 수 있으며 공감, 정서지각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를 들면 '슬프거나, 화나거나, 두렵거나, 무서울 때 말로 적절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다', '또래가 말을 걸면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대한다' 등이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84, 적응적 정서조절 .77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요인과 권위주의적 통제요인, 그리고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 중 허용·방임요인에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박성연과 이숙(1990)의 애정요인과 권위주의적 통제요인은 각각 9문항으로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 평정용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박영애(1995)의 허용·방임요인은 12문항으로 아동이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한 9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27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Scree test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3개 요인으로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모두 9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9.98%를 설명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9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5.17%를 설명하였으며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모두 9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9.81%를 설명하였으며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세 요인의 설명 변량은 총 54.9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의 예를 들면 애정적 요인의 경우 '자주 껴안아 주고 다독거리 주신다' 권위주의적 통제요인의 경우 '부모님은 자신이 결정한 일을 무조건 따르게 하신다' 허용·방임적 요인의 경우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을 안 하신다' 등이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을 더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애정적 양육행동 .94,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 .87,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82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박민정(2002)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4) 정서조절방략

아동의 정서조절방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Gross와 John(2003)이 정서조절방략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ERQ(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한선화와 현온강(2006)이 번안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인지적 재해석방략에 관한 6개 문항과 정서표현 억제방략에 관한 4개의 문항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재해석방략의 문항의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일 때 나는 감정이 가라앉게끔 생각을 한다' 등이다. 정서억제 방략의 문항의 예를 들면 '내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 등이다. 원 척도는 7점 Likert 척도이나 초등학교 아동이 응답하기 쉽도록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인지적 재해석방략과 정서표현 억제방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인지적 재해석방략 .82, 정서표현 억제방략 .6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2008년 11월 25일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지역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5학년과 6학년 아동 5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는 2008년 12월 8일에서 12일까지 부산시 진구와 사상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3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5학년과 6학년의 18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아동들에게 배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49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과 AMO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아동과 그들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방략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모형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절대 적합지수로 표준카이제곱치, GFI, AGFI, RMSEA를, 증분적

합지수로 TLI, NFI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정은 이론적 정당성과 수정지수에 근거하였다(김계수, 2007, p. 416).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방략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고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r = .285, p < .001$), 허용·방임적 양육행동($r = .247, p < .001$), 정서표현 억제방략($r = .157, p < .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애정적 양육행동($r = -.195, p < .001$)과 자아존중감($r = -.264, p < .0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할수록, 또한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정서표현 억제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인지적 재해석방략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 1>에 의하면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은 애정적 양육행동($r = .352, p < .001$), 자아존중감($r = .370, p < .001$), 인지적 재해석방략($r = .505, p < .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r = -.143, p < .01$), 허용·방임적 양육행동($r = -.148, p < .01$), 정서표현 억제방략($r = -.140, p < .01$)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또한 권위

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지적 재해석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정서표현 억제방략을 적게 사용할수록 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방략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방략과 정서조절능력간의 가설적 경로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χ^2 값은 17.908($df = 2, p = .000$), GFI는 .991, AGFI는 .840, RMSEA는 .127, TLI는 .665, NFI는 .974로 대부분의 적합도가 수용기준 이하로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 수정을 고려하였다. 결과에서 산출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검토한 후 측정오차간의 상관을 허용하여 오차항간의 공변량을 자유화시켜 모델을 수정하였다(김계수, 2007, p. 414).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로모형의 구체적인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절대적합지수의 경우 χ^2/df 는 2.97($p = .085$), GFI는 .998, AGFI는 .946, RMSEA는 .063이고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TLI는 .917, NFI는 .996으로 모든 값이 적합기준에 부합되므로 경로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경로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같으며, 이 중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최종 모형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1>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1	1							
2	-.454***	1						
3	-.033	.173***	1					
4	.461***	-.277***	-.111*	1				
5	.296***	-.026	-.054	.293***	1			
6	-.017	.142**	.156**	-.219***	.119**	1		
7	-.195***	.285***	.247***	-.264***	-.084	.157***	1	
8	.352***	-.143**	-.148**	.370***	.505***	-.140**	-.086	1
M	3.62	2.37	2.11	3.00	3.31	2.66	1.70	3.54
(SD)	(.91)	(.81)	(.64)	(.50)	(.71)	(.80)	(.54)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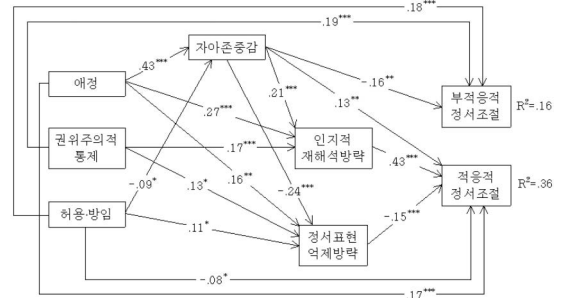
- | | | |
|--------------|------------------|---------------|
| 1. 애정적 양육행동 | 2.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 | 3. 허용·방임 양육행동 |
| 4. 자아존중감 | 5. 인지적 재해석방략 | 6. 정서표현 억제방략 |
| 7. 부적응적 정서조절 | 8. 적응적 정서조절 | |

* $p < .05$, ** $p < .01$, *** $p < .001$

〈표 2〉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적합지수	적합기준	수정모형
χ^2/df	$\chi^2/df < 3$	2,970
p (유의확률)	$p > .05$	$p = .085$
절대적합지수	GFI	GFI > .90 .998
	AGFI	AGFI > .90 .946
	RMSEA	RMSEA < .08 .063
	TLI	TLI > .90 .917
증분적합지수	NFI	NFI > .90 .996

〈그림 2〉에 의하면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beta = .43, p < .001$)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영향($\beta = .19, p < .001$)은 나타났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영향($\beta = .18, p < .001$)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beta = -.09, p < .05$)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나타냈다. 그리고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인 영향($\beta = -.16, p < .01$)이 나타났으나 인지적 재해석방략과 정서표현 억제방략은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모형의 다중상관상지치를 살펴본 결과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설명해주는 설명량은 16%로 나타났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의 경로모형

〈그림 2〉에 의하면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직접적 영향($\beta = .17, p < .0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beta = .43, p < .001$)과 인지적 재해석방략($\beta = .27, p < .001$) 및 정서표현 억제방략($\beta = .16, p < .01$)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자아존중감($\beta = .43, p < .001$)을 통하여 인지적 재해석방략($\beta = .21, p < .001$), 정서표현 억제방략($\beta = -.24, p < .001$)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아동의 인지적 재해석방략($\beta = .17, p < .001$)

〈표 3〉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변인간 경로	B	β	S.E.	C.R.
애정적 양육행동	→ 자아존중감	.263	.427	.027	9.576***
	→ 인지적 재해석방략	.143	.274	.027	5.350***
	→ 정서표현 억제방략	.061	.156	.021	2.959**
	→ 부적응적 정서조절	-.016	-.022	.038	-.416
	→ 적응적 정서조절	.102	.166	.028	3.629***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	→ 자아존중감	-.047	-.069	.031	-1.516
	→ 인지적 재해석방략	.096	.165	.028	.445***
	→ 정서표현 억제방략	.055	.126	.022	2.552*
	→ 부적응적 정서조절	.153	.189	.039	3.927***
	→ 적응적 정서조절	.010	.015	.029	.354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 자아존중감	-.074	-.085	.035	-2.117*
	→ 인지적 재해석방략	-.037	-.050	.031	-1.174
	→ 정서표현 억제방략	.062	.112	.024	2.542*
	→ 부적응적 정서조절	.189	.184	.044	4.317***
	→ 적응적 정서조절	-.073	-.084	.032	-2.261*
자아존중감	→ 인지적 재해석방략	.176	.207	.040	4.361***
	→ 정서표현 억제방략	-.155	-.244	.031	-4.978***
	→ 부적응적 정서조절	-.188	-.159	.058	-3.218**
	→ 적응적 정서조절	.128	.128	.043	2.967**
인지적 재해석방략	→ 부적응적 정서조절	-.034	-.025	.063	-.547
	→ 적응적 정서조절	.509	.432	.047	10.896***
정서표현 억제방략	→ 부적응적 정서조절	.128	.069	.082	1.575
	→ 적응적 정서조절	-.236	-.150	.061	-3.89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양육행동	애정	-	-.07	-.07
		권위주의적 통제	.19	.02	.21
		허용·방임	.18	.02	.20
	자아존중감	-.16	-.02	-.18	
	정서조절방략	인지적 재해석방략	-	-	-
	정서표현 억제방략	-	-	-	
적응적 정서조절	양육행동	애정	.17	.20	.37
		권위주의적 통제	-	.04	.04
		허용·방임	-.08	-.06	-.14
	자아존중감	.13	.13	.26	
	정서조절방략	인지적 재해석방략	.43	-	.43
	정서표현 억제방략	-.15	-	-.15	

과 정서표현 억제방략($\beta = .13, p < .05$)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영향($\beta = -.08, p < .05$)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beta = -.09, p < .05$)과 정서표현 억제방략($\beta = .11, p < .05$)을 매개로, 또한 자아존중감($\beta = -.09, p < .05$)을 통하여 인지적 재해석방략($\beta = .21, p < .001$), 정서표현 억제방략($\beta = -.24, p < .001$)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인 영향($\beta = .13, p < .01$) 뿐만 아니라 인지적 재해석방략($\beta = .21, p < .001$)과 정서표현 억제방략($\beta = -.24, p < .001$)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인지적 재해석방략($\beta = .43, p < .001$)과 정서표현 억제방략($\beta = -.15, p < .001$)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본 결과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설명해주는 설명량은 36%로 나타났다.

이들을 종합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방략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여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가장 큰 직접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인과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순으로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인지적 재해석방략은 가장 큰 직접효과 및 총 효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표현 억제방략,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이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미약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이들 관련변인들이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쳐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조절을 감소시키는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적극·사회지지추구 전략을 매개로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친다는 연구(박서정, 2004)와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연구(오남희, 2008)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박영애 외, 2002) 및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지도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긍정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정적관계가 보고된 연구(임희수, 박성연, 2001)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로써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며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하여 적응적 정서조절의 보호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온화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의 어머니를 모델로 자신의 정서를 보다 기능적이고 적응적으로 조절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정서조절방략을 증진시켜 주어 적응적인 정서조절에 도움이 되는 한편 부정적인 정서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게 하여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과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여 가장 큰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거부·강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서정, 2004)와 어머니가 한계설정을 많이 할수록 또한 덜 반응적일수록 아동은 부정적 정서조절을 많이 한다는 연구(송혜영, 2007)와 일치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권위주의적이며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위험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의 어머니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여 아동을 비난하고 처벌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표출하여 이들 자녀들은 위축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아동은 자율성과 자기통제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관찰하고 학습하며 어떻게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는가에 대한 학습의 기회(Eisenberg & Fabes, 1994)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의 양육행동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인 결과는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Calkins et al., 1998)와 일치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저해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 정서표현 억제방략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인지적 재해석방략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방략간의 상관관계 결과와 비교해보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인지적 재해석방략과 정적관계가, 정서표현 억제방략과는

약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인지적 재해석방략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서표현 억제방략과는 약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조절방략을 통하여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경로의 인과효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적응적 정서조절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긍정적인 인과효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정서표현 억제방략에 미치는 정적 영향과 권위주의적 통제의 양육행동이 인지적 재해석방략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미약하며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인지적 재해석방략과 정서표현 억제방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보완되어 이에 대한 해석 및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효과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게 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증진시키는 간접 효과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적응적 정서조절을 감소시키는 직접효과와 자아존중감을 낮게 하고 정서표현 억제방략은 높게 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증진시키는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남아의 낮은 정서조절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오남희, 2008)와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현심, 최미경, 1998), 또한 부정적 정서조절전략과 관계있다는 연구(임희수, 박성연, 2001)에 의해 지지된다. 이로써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은 감소시키며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효과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은 높게 하는 간접 효과도 있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 영향도 미치며 그 효과는 양육행동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지적 재해석방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이 발달되며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완화하게 된다. 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하고 정서표현 억제방략을 형성하게 하여 이는 곧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을 유발하고 적응적 정서조절은 감소시키게 된다. 이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 및 적응적 정서조절능력

간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 방략이 매개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적응적 정서조절에는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부적응 및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경남, 2009),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잘 한다는 연구(Carver et al., 1989)와 자아존중감이 낮은 개인들은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벗어나거나 극복하기 어렵다는 연구(Brown & Mankowski, 1993)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다. 즉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정서표현 억제방략 사용을 줄이고 인지적 재해석방략 사용을 활성화 하여 아동이 보다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정서표현 억제방략보다 인지적 재해석방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손재민, 2004)와 일치한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서조절방략을 사용 한다는 연구(민경환 외, 2000)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하여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 영향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평가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방략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조절방략의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인지적 재해석방략은 직접적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반면 정서표현 억제방략은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 인지적 재해석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정서표현 억제방략은 적게 사용할수록 적응적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재해석방략을 사용하는 개인들이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려는 개인보다 더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한다는 연구(손재민, 2004) 및 적극·사회지지 추구 전략의 능동적인 정서조절방략이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박서정, 2004)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정적 정서가 인지적 재해석방략과는 정적 관계가 정서표현 억제방략과는 부적관계가 나타난 연구(한선화, 현은강, 2006)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로써 정서적 자극상황에서 이를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반응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인지적 재해석방략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정서표현 억제방략은 오히려 부정적이고 부적응적인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인지적 재해석방략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슬픔,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황에서 이를 인지적으로 재해석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정서를 기능적이고 적응적으로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략이다. 반면, 정서표현 억제방략은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생리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방략이라고 볼 수 있다(Gross, 1998, 손재민, 2004, 재인용). 그러므로 정서조절 방략은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궁극적으로는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향한 개인의 내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서조절의 효과성에서 차이가 나며 정서표현 억제방략보다 인지적 재해석방략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지적 재해석방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그 감정을 상황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바람직하게 표출하는 정서조절방략이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개인의 자발적인 인지적 처리과정에 의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사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서를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효율적인 정서조절방략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이며 허용과 방임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증진하게 하며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의 증진을 도우며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완화하여 아동의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감소하게 하나 적응적 정서조절은 증진하게 하는 직접효과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조절능력 간에 매개효과도 나타나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의 긍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인지적 재해석방략은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정서표현 억제방략은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보

인다. 또한 이들 정서조절방략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적 정서조절 간에 매개적 역할을 보인다. 셋째,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이 적응적 정서조절에 인지적 재해석방략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며 인지적 재해석방략은 적응적 정서조절의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가족환경 및 사회적 요인을 함께 다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보완한 좀 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통하여 아동의 보고에만 의존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보고 및 교사 와 또래 보고 등 다중적 자료를 병행하여 심도 있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좀 더 일반화 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계수(2007).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출판사.

김미정(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9(2), 19-33.

문영숙(2002). 어머니의 애착유형,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간호학술지**, 5, 37-53.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2000). 부정적 정서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 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박민정(200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서정(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성연, 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의 성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43-60.

손재민(2004). 정서조절 방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인지적 재해석인과 정서표현 억제인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혜영(2007). 유아의 정서적·행동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남희(2008).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2006).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1), 167-181.

이경남(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6), 1209-1219.

이숙, 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31-42.

이혜련, 최보가(2005).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5), 1-14.

임희수,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한선화, 현온강(2006). 청소년의 정서성과 정서조절전략 및 자기통제력. **아동학회지**, 27(6), 1-11.

한유진(2006).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6(4), 85-100.

허정목(2005).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유아의 공격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ocess.

Brown, J. D., Mankowski, T. A.(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alkins, S. D., Smith, C. L., Gill, K. L., & Johnson, M. C.(1998). Maternal interactive style across contexts: Relations to emotional,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gulation during toddlerhood. *Social Development*, 7, 350.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F.(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Eisenberg, N., Cumberland, A. L. Spinard, T. L., Fabes, R., Shepard, S. A., & Reiser, M.(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 1112-1134.
- Eisenberg, N., & Fabes, R. A.(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 Gottman, J. M. & Katz, L. F.(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Gross, J. J.(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271-299.
- Gross, J. J.(2001).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39, 281-291.
- Gross, J. J. & John, O. P.(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Malatesta, C., & Haviland, J.(1982). Learning display rule: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 991-1003.
- Riegel, K. F.(1973). Dialectic operations: The final period of 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6, 346-370.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Rydell, A. M., Berlin, L., & Bohlin, G.(2003).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adaptation among 5- to 8-year old children. *Emotion*, 3, 30-47.
- Shaffer(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ed). ;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 Shields, A., & Cicchetti, D.(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 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al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접 수 일 : 2010년 2월 2일

심사시작일 : 2010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3월 11일